

(주)씨티씨바이오, 대만 Chi Fu Trading과 CBD 사업 MOU체결

▶ 지난 11월 일본시장 진출에 이어 대만시장 진출... 해외진출 가속화

▶ Chi Fu Trading, 신경계 의약품 유통 전문기업으로 대만시장 내 통증완화 및 신경병변 분야 확장

<2022-12-13> 의약품 연구개발 전문기업인 (주)씨티씨바이오(대표이사 이민구)는 13일 대만소재 기업인 “Chi Fu Trading”과 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 구강용해필름(Oral Dissolving Film, 이하 ODF)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구강용해필름 제조 기술을 개발한 제약사인 씨티씨바이오는 지난 11월 일본소재 기업 Co-Evolution Network LLC(이하 CoNet LLC)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대만소재 기업 Chi Fu Trading 과 추가로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CBD ODF 상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난 CoNet LLC 와 체결한 내용과 동일하게 씨티씨바이오가 기술개발을 우선적으로 완료하고 개발한 제품을 공급하는 형태로 Chi Fu Trading 은 대만시장에 유통할 예정이다.

Chi Fu Trading 은 대만소재 기업으로 1961년 설립되어 신경계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회사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경계 의약품에 대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통증완화 및 신경병변 분야의 확장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씨티씨바이오가 기술개발 이후 공급하게 될 제품은 CBD 를 함유한 ODF 로 이미 국내 특허 출원을 완료했으며 해외에도 특허 출원 진행중이다. 기존 오일 형태의 CBD 를 ODF 에 적용할 경우 생체이용율이 높아지므로 편의성과 더불어 정확한 용량을 투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

회사는 지난 2017년부터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경북 산업용 헴프(Hemp) 규제자유특구’에서 국책과제로 CBD 연구개발을 진행해왔으며 국책과제 수행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씨티씨바이오 김영덕 사장은 “전 세계에서 필름형 CBD 의 연구개발 및 생산기술을 확보한 기업은 씨티씨바이오가 유일하다.”며 “이번 업무 협약으로 일본시장에 이어 대만시장에도 진출하게 되었으며 이를 교두보 삼아 해외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와 일본, 캐나다, 미국 등 다수 국가들이 CBD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합법화하면서 대마를 활용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 의료용 대마시장은 연평균 22.1%씩 성장하여 2024년 5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